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영역 프랑스어 I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③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③ 08. ① 09. ⑤ 10. ②
11. ④ 12. ① 13. ⑤ 14. ② 15. ④ 16. ⑤ 17. ② 18. ⑤ 19. ① 20. ①
21. ④ 22. ① 23. ⑤ 24. ③ 25. ② 26. ③ 27. ② 28. ① 29. ① 30. ④

[1~5] 발음 및 어휘

1. 자음의 발음 이해하기

Salut, mon voisin ! 안녕, 나의 이웃!
[vwazɛ̃]

- ① jeu [ʒø] ② mars [mars] ③ page [pa:ʒ]
④ douze [du:z] ⑤ histoire [istwa:ʁ]

정답해설: voisin의 자음 's'는 [z]로 발음하므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 있는 낱말은 ④번이다. 정답 ④

2. 철자 이해하기

- (a) 그 여자는 6시에 일어난다(Elle se lève).
(b) 우리는 생각을 바꾼다(Nous changeons).
(c) 나는 내 오래된 옷을 버린다(Je jete → Je jette).
(d) 그 사람들은 영어 숙제를 끝마친다(Ils finissent).
(e) 우리는 함께 노래하기 시작한다(Nous commençons).

정답해설: 1군 동사 jeter(던지다)는 1, 2, 3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에서 'tt'로 변화하는 유형이므로, 'je jette'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3. 어휘(동사) 이해하기

A: 노동절은 무슨 요일이야?
B: 금요일이야.
A: 마침 잘 됐다. 우리는 3일간의 주말을 맞겠어!

- ① 생각하다 ② (시기가) ~에 걸리다 ③ 떠나다
④ 준비하다 ⑤ 이야기하다

정답해설: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의 빈칸에는 '시기가 ~에 걸리다'의 의미가 들어갈야 하며, B의 'Ça tombe bien'은 '마침 잘 됐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 ① 난 반대야 ② 난 아니야 ③ 넌 정말 친절하구나
 ④ 난 동의하지 않아 ⑤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정답해설: 대화의 보아 빈칸에는 연습 문제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이 스웨터 좀 봐. 괜찮네. 넌 어떤 색깔을 더 좋아해?

B: 난 빨간색을 아주 좋아해. 이게 나에게 잘 어울려.

A: 맞아.

- ① 난 빨간색을 아주 좋아해 ② (날씨가) 너무 추워
 ③ 그것이 너무 커 ④ 난 스웨터를 싫어해
 ⑤ 난 다리가 아파

정답해설: 대화에서 B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A의 질문에 답해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 번이다. **정답 ①**

9. 대화 내용 이해하기

Hugo: 바쁘니?

Théo: 아니, 난 시간 있어.

Hugo: 산책하러 가는 건 어떨까?

Théo: 기꺼이!

- ① 이건 네 거야 ② 넌 어디 출신이야 ③ 왜 그렇게 하려고
 ④ 너 피곤해 ⑤ 산책하러 가는 건 어떨까

정답해설: Hugo와 Théo는 둘 다 시간이 있고, Hugo의 말에 Théo가 '기꺼이'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무언가를 제안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Si + 주어 + 동사(반과거 시제)~'는 공손한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0. 기사문 내용 이해하기

한국인 대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해 드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19시부터만 가능합니다.
시간당 20유로입니다.

정답해설: 게시문의 내용으로 보아 수업료가 시간당 20유로라는 ②번만 알맞은 내용이다. 정답 ②

A: 무엇을 원하세요?
B: 저는 딸기를 사고 싶어요.
A: 얼마나 (넣어) 드릴까요?
B: 딸기 2킬로 주세요.

- 정답해설:** B가 딸기 2kg을 원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A의 빈칸에는 얼마나 원하는지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A: 미안해. 내일, 우리 어디서 볼까?
내가 잊어버렸어.

B: Gaumont 영화관 앞에서(봐).

- 정답해설:** B가 장소를 말하고 있으므로 A의 빈칸에는 장소를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La Normandie

Paris의 Lys 거리 13번지

Jade : 대박! 우리 다시 오자!

Maël : 괜찮고, 요리도 맛있어!

Rose : 아주 맛있는 음식이야!

Léna : 모든 게 훌륭해, 전식부터 디저트까지!

Clara : 아무 맛이 없더라! 주방장도 예의가 없고!

정답해설: 식당 방문 후기 글에서 Clara만 부정적인 불만의 내용을 표현하며, 나머지 네 사람은 모두 긍정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4.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얼마예요?

B: 50유로입니다. 어떻게 지불하시겠어요?

A: 카드로 하겠습니다.

① 천만에요

② 카드로요

③ 무슨 일이 있어도(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④ 기꺼이

⑤ 건강을 위하여

정답해설: B가 지불 방식을 묻고 있으므로 A의 빈칸에는 ‘카드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5.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오늘이 며칠이지?

B: 20일이야.

A: 아! 난 오늘 오후에 치과에 가야 해.

① 우리는 5명이야

② 수요일이야

③ 겨울이야

④ 20일이야

⑤ 2시야

정답해설: A가 날짜를 묻고 있으므로 B의 빈칸에는 날짜로 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프랑스어를 잘 하시네요. 국적이 어떻게 되세요?

B: 저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A: 저는 스위스인입니다.

① 날씨가 어때

②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③ 이름이 뭐예요

A: Monet의 집을 방문할 거야. 나랑 함께 가겠니?

B: 좋아. 멀어?

A: 가깝지는 않아.

B: 거기에 어떻게 갈 건데?

A: 내 차로 갈 거야.

B: 시간이 얼마나 걸려?

A: 대략 30분.

<보 기>

a. 멀어

b. 거기에 어떻게 갈 건데

c. 대략 30분

정답해설: 빈칸에 들어갈 표현의 어순을 정하는 문제로 질문자의 대답에 따라 판단하면 쉬운 문항이다. 거리와 가는 방법(교통수단), 소요 시간의 순으로 질문과 대답이 호응하는 것은 a-b-c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1. 안내문 이해하기

여름에 무척 더울 때 어떻게 할까요?

- 물을 많이 마시기
- 밤에 창문 열어 놓기
- 운동을 지나치게 하지 않기
- 12시 ~ 14시 사이 외출하지 않기
- 하루에 여러 번 샤워하기

정답해설: 더위를 피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 중, 가장 더울 때인 12시와 14시 사이에 외출하지 않기가 있으므로 오전으로 시간을 잘못 제시한 ④가 정답이다. **정답 ④**

[22~26] 문화

22. 지식 문화: Orsay 박물관

- 이것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의 하나이다.
- 전에, 이것은 기차역이었다.
- 이 박물관에는 Manet와 Renoir 등의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들이 있다.

① Orsay 박물관

② Grévin 박물관

③ Orangerie 박물관

④ Luxembourg 박물관

⑤ Quai Branly 박물관

정답해설: 프랑스의 유명 박물관 중 과거에 기차역을 개조하여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곳은 오르세(Orsay) 박물관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3. 언어문화

A: Noah의 테니스 경기 봤니?
B: 응. 그가 손가락을 코에 넣은 채(여유 부리며) 이겼어.
A: 그게 무슨 뜻이야?
B: 그건 어렵지 않게 이겼다는 뜻이야.
A: 아, 이해했어.

- ① 그는 열심히 일했어
- ② 그가 경기를 졌어
- ③ 그는 자정에 도착했어
- ④ 그는 아주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 ⑤ 그가 쉽게 경기를 이겼어

정답해설: 대화문은 ‘les doigts dans le nez’라는 관용구를 이해하는 것인데, B가 ‘어렵지 않게’라고 뜻풀이를 하고 있으므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4. 화가 Pierre Soulages

Pierre Soulages는 현대 미술에서 아주 중요한 프랑스의 화가이다. 자신의 작품에서 그는 검은색을 많이 사용했다. 그는 1919년에 Rodez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에는 그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이 있다. 2019년에 루브르(Louvre)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이 화가의 100주년을 축하했다.

<보 기>

- a. 그는 1919년에 화가가 되었다.
- b. Rodez에 있는 한 미술관은 그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 c.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검은색을 사용했다.
- d. Louvre 박물관은 2019년에 그의 전시회를 거부했다.

정답해설: 그는 1919년에 태어났으므로 a는 틀렸고, 2019년에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의 100주년 전시회가 열렸으므로 d도 옳지 않다.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b와 c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5. 예술 문화: 음악 축제(Fête de la Musique)

음악 축제는 프랑스에서 1982년에 빛을 보았다(탄생했다). 매년 6월 21일, “음악을 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따라서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듣는다. 음악은 도처에 있고 축제는 무료다. 오늘날 이 축제는 유럽의 여러 국가로 확대돼 있다.

정답해설: 프랑스의 음악 축제를 설명하고 있는 제시문에서 ‘1982년에 빛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태어나다’, 또는 ‘(어떤 행사가) 최초로 시작되다’라는 것을 뜻하므로 ②가 이를 정확히 나타내고 다른 선택지들은 제시문의 내용과 다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6. 지리 문화: La Corse

Mia: 바캉스로 어디로 여행했니?

Noé: 프랑스의 남동쪽에 있는 코르시카(Corse)로 갔었어.

Mia: Napoléon Bonaparte가 그 섬에서 태어난 걸 알고 있니?

Noé: 응, Ajaccio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했어. 코르시카는 도보 여행으로도 유명해. 이 사진들을 봐!

Mia: 정말 멋지구나! 그래서 코르시카를 ‘아름다움의 섬’으로 부르지.

정답해설: 대화문은 코르시카(la Corse)에 관한 내용으로, 프랑스의 남동쪽에 있는 섬이므로 a는 틀렸고, 또한 이곳은 나폴레옹(Napoléon)이 태어난 곳이므로 d도 틀렸다. b와 c가 내용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7~30] 문법

27. 의문대명사

A: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나니?

B: 내 고등학교 친구들.

① 무엇을 ② 누구를 ③ 무엇(que의 강세형) ④ 무엇에 ⑤ 누구에 대해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의문대명사에 관한 문항이다. 의문대명사 que는 ‘무엇(을)’이라는 뜻으로 직접목적어로, qui는 ‘누가’ 또는 ‘누구를’이라는 뜻으로 주어 혹은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que는 동사 뒤에 오거나 전치사 뒤에 놓일 때는 강세형 quoi로 바뀐다. 대화문에서 빈칸에 rencontrer의 직접목적어를 요구하고, 대답이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나오므로 ‘누구를’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qui가 정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8. 시간 표현의 전치사/부사구

A: Robert는 이제 (가고) 없니?
 B: 응, 개는 a, b 조금 전에 떠났어. 그런데 왜?
 A: 개에게 할 말이 있었어.

<보 기>

- | | |
|-------------|----------|
| a. 조금 전에/부터 | b. 조금 전에 |
| c. 언제든지 | d. 얼마 후에 |

정답해설: 시간 표현의 전치사/부사(구)에 관한 것으로 동사의 시제와 연관해서 파악해야 한다. <보기> a에서 'depuis+기간'은 과거를 기점으로 지속을 나타내어 '~전부터'라는 뜻으로 주로 현재(또는 반과거)와 함께 쓰이지만,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도 유효한 경우에는 복합과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depuis peu'는 얼마 전부터' 또는 '조금 전에'라는 의미인데 해당 문장은 '얼마 전에 떠나고 여기 없다'는 것을 뜻하므로 a는 옳다. b에서 tout à l'heure는 관용구로써 미래 문맥에 쓰일 때는 '조금 있다(가)'를, 과거 문맥에 쓰일 때는 '조금 전에'라는 뜻인데, 여기서 시제가 과거이므로 후자의 뜻으로 적절하다. 반면에 c의 'à tout moment'은 '언제든지(← 모든 때에)'라는 뜻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d에서 전치사 dans은 시간의 용법으로 쓰이면 'dans+기간'의 구조로 '~의 기간 후에'라는 뜻으로, 항상 미래 문맥에서 사용되므로 부적절하다. 따라서 a, b만 적절하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9. 대명동사의 복합과거

- a. 그녀는 미소 짓기 시작했다.
 b. 내 딸은 발을 다쳤다.
 c. 그들은 서로를 기억했다.
 d. 그녀는 행복한 시절을 기억했다.

정답해설: 대명동사의 복합과거에서 과거분사의 성수 일치에 관한 문항이다. 대명동사는 복합과거에서 조동사는 être를 쓰고, 과거분사는 se가 직접목적어일 때는 주어에 성수 일치시키지만, se가 간접목적어일 때는 일치시키지 않는다. a의 'se mettre à + inf(~하기 시작하다)'에서 se는 직접목적어이기에 과거분사 mise는 옳다. 그리고 b의 'se blesser au bras'에서 se도 직접목적어로 과거분사 blessée는 역시 주어에 성수 일치시킨 옳은 형태이다. (같은 의미로 'se blesser le bras'로 가능한데, 이 경우는 le bras가 직접목적어가 되고 se는 간접목적어가 되므로 복합과거에서 과거분사 blessé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c의 'se rappeler l'un l'autre(서로를 기억하다)'에서 se는 직접목적어이므로 'Ils se sont rappelés ~'로 바뀌어야 되고, d의 'se souvenir de ~ (~을 기억하다)'는 숙어처럼 사용하는 본질적 대명동사로, 이 경우 se는 직접목적어로 간주되므로 'Elle s'est souvenue des jours heureux'로 바뀌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따라서 a와 b만 어법상 옳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30. 중성보어인칭대명사 en, y

- a. 이 초콜릿 원하니? - 응, 한 상자 가져갈게.
- b. 축구할 수 있니? - 아니, 난 할 줄 몰라.
- c. 그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니? - 아니, 거기서 나갔어.

정답해설: 중성보어인칭대명사 en과 y에 관한 문항이다. 우선 en은 불특정한 명사를 대신하는 용법과 ‘전치사 de + 사물명사’ 전체를 대신하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가령 ‘Vous avez des frères?’에 대한 대답으로 ‘Oui, j’en ai (deux).’의 경우처럼 명사를 불특정한 의미로 대신하는 것이 있다(이때, 필요하다면 en이 대신하는 명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동사 뒤에 수량 표현이 올 수 있음). 반면에, 직접목적어 인칭대명사 le/la/les는 명사를 특정하여 대신하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나 수량 표현이 동반될 수 없다. 따라서 a에서 대답으로 ‘Oui, je le prends.’이라면 옳은 문장이지만(le = ce chocolat), ‘Oui, je le prends une boîte.’는 어법상 틀린다. 왜냐하면 le를 사용하면 une boîte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으로, ‘Oui, j’en prends une boîte.’로 고쳐야 된다. 여기서 en은 ‘de ce chocolat’의 뜻으로 une boîte에 걸리는 데, 즉, ‘je prends une boîte de ce chocolat’에서 ‘de ce chocolat’를 en으로 대체한 것이다. 즉, 이 경우의 en은 ‘de + 사물명사’를 대체한 것이다. c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on, il en est sorti.’에서 en은 ‘de son bureau’를 대체한 것으로 옳은 문장이다. 한편 y도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장소적 의미로 쓰여서 ‘거기에/로’ 또는 ‘거기에서’(단, ‘이탈’의 의미는 제외: ex. 거기에서 나오다 → en sortir)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와, ‘à + 사물명사’ 전체를 대신하는 용법이다. b의 질문에서 faire du sport가 사용되지만, 대답에서는 jouer로 동사가 달라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 ‘jouer à +정관사 + 운동/놀이 명사’의 간접타동사 구문의 동사이므로 ‘au foot’ 즉, ‘à + 사물명사’를 대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y로 대체한 것이다. 따라서 b도 어법상 옳은 문장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